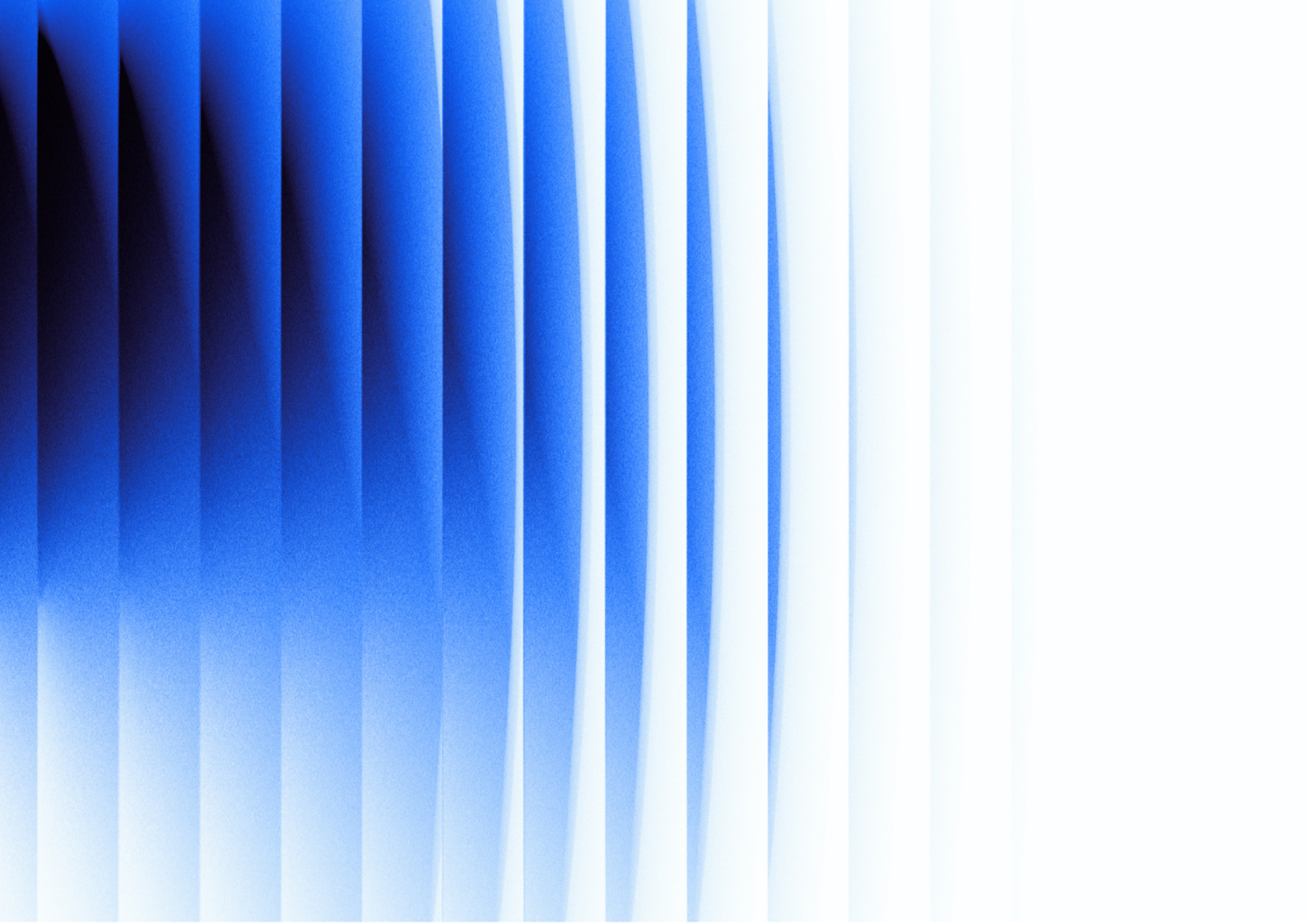




Bitcoin Treasury 101

국내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입문서

July 2025

Table of Contents

1. '디지털 금' 그 이상을 향한 진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발돋움

시대별 전략적 진화

비트코인 편입 전략의 분류 체계

2. 국내 도입 기회와 한계

규제, 늦었지만 희망적인 신호

국내 기업의 딜레마

3. 기업별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양극화

비트코인 중심 경영을 위한 재무 전면 통합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보완적 자산 편입

4. 재무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

비트코인과 신용평가의 관계

재무지표의 재정의

5. 체계적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

Executive Summary

왜 지금 기업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하는가

한국은 개인투자자의 약 35%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차원의 재무적 활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며 새로운 자산운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와 제도적 성숙은 국내 기업들에게 '후발 주자의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FASB 회계 개정(ASU 2023-08 개정안), 규제 명확성 확보, 리스크 통제 수단 정비 등 선진국 중심의 제도 정착은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불확실성'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보다 심도 있고 정교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환경이 조성된 것 입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 네 가지 전략적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비트코인의 구조적 가치와 진화

비트코인은 공급량 제한, 탈중앙화 네트워크, 글로벌 유동성 등 고유한 속성을 통해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 다각화,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도입의 기회와 구조적 제약

회계·세제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세대 간 인식 차, 이해관계자 설득 부담 등 국내 기업 고유의 제약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기업별 재무 전략의 양극화

비트코인을 도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 자금 조달 기반의 집중형 전략과 잉여현금 기반의 점진적 편입 전략 간의 구조적 차이와 리스크를 비교합니다.

4. 회계·신용평가·성과관리 체계의 전환 필요성

무형자산 분류의 한계, 전통적 신용등급 체계의 불일치, 새로운 재무지표(mNAV, BTC Yield 등)의 등장 등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에 필요한 회계 및 조직 체계의 전환 요건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국내 기업의 재무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과 '시장 신뢰'가 동시에 확보된 첫 시점입니다. 초기 전략적 진입은 단기 수익 실현보다 브랜드 신뢰도 제고, 재무전략의 유연성 확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제도권 선점이라는 구조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단기 수익을 넘어 장기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사례와 국내 현실 기반 인사이트를 통해 실행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1. '디지털 금' 그 이상을 향한 진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발돋움

기업들의 비트코인(또는 BTC) 활용은 단순 보유를 넘어 결제 시스템 구축 또는 Web3.0 사업 진출 등 사업 모델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는 2,100 만 개로 제한된 총 발행량과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2020 년 이후 연평균 64% 수익률을 기록하며¹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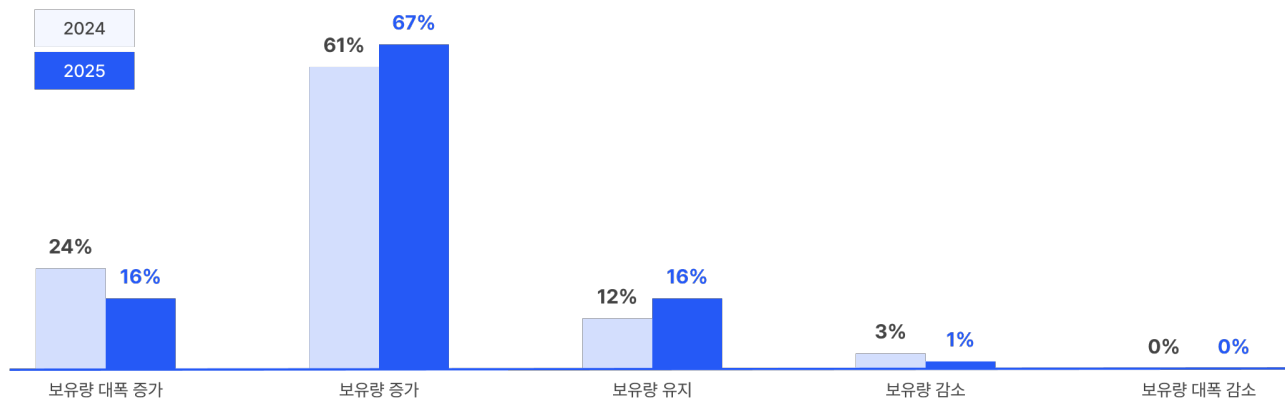
2025 년 EY-Parthenon 과 Coinbase 가 글로벌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337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는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 기대(59%), 혁신 기술 투자(49%), 인플레이션 헷지(41%), DeFi 참여(35%) 및 거래 편의성(26%)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거시경제적 위험 관리와 기술 혁신 참여 및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Figure 1 – 가상자산 보유 기관 설문 조사 결과

Q: '24년 귀사의 포트폴리오 중 가상자산 할당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2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대상 : 보유 가상자산 가치가 \$1B 이상인 전 세계 기관 투자자 352개사 (미국 소재 비중 62%)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ex. CEO, COO, Head of Transformation)

기간 : '25.01.3 ~ '25.01.24



Source: EY-Parthenon, Coinbase

비트코인의 구조적 특징

공급량 제한 메커니즘의 전략적 의미: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프로토콜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법정화폐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희소성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공급량의 예측 가능성과 절대적 제한성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¹ Casebitcoin. Bitcoin & Traditional Assets CAGR. Casebitcoin, 2025.

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설계된 이래 비트코인의 고유한 기술적 구조와 수학적으로 설계된 희소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입이나 변동성으로부터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체 자산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인프라의 운영적 우위: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는 특정 정부나 중앙 금융기관의 통제나 개입 없이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만 개의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조적 특성은 기업들에게 제3자의 승인이나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자산을 보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운영적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은행 간 네트워크, 환전 절차 그리고 각국의 상이한 금융 규제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의 자본 운용 전략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 요소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들이 물리적 보관, 운송 그리고 복잡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지갑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만으로도 수억 달러 규모의 고액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자산 운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24/7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자산 재배분이 요구되는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전통적 자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운영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적 가치

인플레이션 헷지 효과 검증: 비트코인의 프로토콜 수준에서 보장되는 고정된 공급량 구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로 화폐 발행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실질 자산 가치 하락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합니다. 법정화폐가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공급량이 급격히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가치 보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통화정책 확장 국면에서 해당 이론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FRS(Federal Reserve System)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M2 통화공급량이 약 40% 급증하여²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4%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고 나아가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체 자산 중 하나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장기 가치 상승 구조: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은 절대적으로 제한된 공급량과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글로벌 수요라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구조적 요인이 만들어내는 근본적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총 공급량 2,100만 개를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결제 시스템으로의 활용 증가, 그리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점진적 수용이 진행될수록 수요-공급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실적이 이러한 구조적 동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비트코인의 누적 수익률은 26,931%를 기록하며 동일 기간 S&P 500의 193%와 금의 126% 수익률을³ 압도적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실물 자산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기적 자본 성장을 실현하며,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합니다.

² Aro, Robert. How Much Did They Print? Mises Institute, May 2023.

³ CoinGecko. Bitcoin Outperformed Traditional Assets by Over 26,000% in the Last Decade. CoinGecko, Dec. 2024.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혁신적 효과: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자산과 다른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중앙은행 정책, 기업 실적 및 거시경제 지표에 노출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 변화 및 인프라 확장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트코인은 S&P 500과 0.34, 금과 0.12, 미국 10년 국채와는 -0.08의 상관계수를⁴ 기록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존 포트폴리오에 편입 시 주식 및 채권 시장 충격으로부터 자산을 분산시켜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업 활용으로 확장: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재무적 투자 대상을 넘어 사업 확장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이 급속히 확산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기술적 혁신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합니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등 비트코인 보유 자체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혁신적 기업 문화의 상징으로 활용하여 테크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Web3.0 생태계로의 전략적 진출이나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과 신사업 영역 개척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자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Figure 2 – 비트코인과 타 자산의 상관관계 매트릭스

	BTC/USD	ETH/USD	COIN50	SPX	Gold	Silver	CRY	Copper	MOVE	DXY	VIX	US 2Y	US 10Y
BTC/USD	1.00	0.71	0.62	0.49	0.06	0.07	-0.10	-0.15	-0.17	0.08	-0.36	0.03	0.02
ETH/USD	0.71	1.00	0.61	0.55	0.05	0.04	-0.01	0.02	-0.37	-0.08	-0.37	-0.03	-0.11
COIN50	0.62	0.61	1.00	0.35	-0.02	0.02	0.02	-0.05	-0.24	0.07	-0.20	-0.08	-0.08
SPX	0.49	0.55	0.35	1.00	0.16	0.21	-0.13	-0.12	-0.34	0.04	-0.81	-0.01	0.00
Gold	0.06	0.05	-0.02	0.16	1.00	0.78	0.39	0.49	-0.06	-0.35	-0.24	-0.17	-0.23
Silver	0.07	0.04	0.02	0.21	0.78	1.00	0.34	0.55	-0.06	-0.35	-0.27	-0.18	-0.21
CRY	-0.10	-0.01	0.02	-0.13	0.39	0.34	1.00	0.49	-0.07	-0.15	0.10	-0.02	-0.03
Copper	-0.15	0.02	-0.05	-0.12	0.49	0.55	0.49	1.00	-0.06	-0.56	0.10	-0.25	-0.38
MOVE	-0.17	-0.37	-0.24	-0.34	-0.06	-0.06	-0.07	-0.06	1.00	-0.10	0.20	0.12	0.09
DXY	0.08	-0.08	0.07	0.04	-0.35	-0.35	-0.15	-0.56	-0.10	1.00	0.14	0.50	0.66
VIX	-0.36	-0.37	-0.20	-0.81	-0.24	-0.27	0.10	0.10	0.20	0.14	1.00	0.19	0.14
US 2Y	0.03	-0.03	-0.08	-0.01	-0.17	-0.18	-0.02	-0.25	0.12	0.50	0.19	1.00	0.78
US 10Y	0.02	-0.11	-0.08	0.00	-0.23	-0.21	-0.03	-0.38	0.09	0.66	0.14	0.78	1.00

Source: Coinbase, Glassnode

2024.Q4

⁴ EY-Parthenon and Coinbase. Increasing Allocations in a Maturing Market. Coinbase Institutional, 2025.

시대별 전략적 진화

기업들의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각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선도 기업들은 기술 혁신의 선점 효과를 위해 실험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통화 확장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현금성 자산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Web3.0 생태계 확산에 따라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과 사업 전략에 통합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세 가지 세대로 구분되는 명확한 진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1세대: 선제적 탐색, 기술 내재화 및 인프라 실험

2세대: 인플레이션 헷지, 거시경제 불안정성 대응

3세대: 경영 전략화,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과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

1세대: 선제적 탐색 (2017~2019)

2017년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20,000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제도적 인프라와 규제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불확실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견지명을 가진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적 잠재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 시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미래 기술 패러다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제도적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근본적 변화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과 생태계 내 유리한 포지셔닝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술적 실험과 사업적 기회 탐색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 **Founders Fund (2017):** 5,000만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 2,800개를 매입. 벤처캐피탈 업계 최초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로 기술 선점 목적. 2021년 약 19억 달러 수익 실현으로 초기 전략적 투자의 유효성을 입증.
- **Fidelity Digital Assets (2018):** 기관 전용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출범. 4년간 내부 연구를 통한 시장 진입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성 확보 목적. 첫 해 50개 이상 기관 고객 유치로 시장 신뢰도 구축.

2세대: 인플레이션 헷지 (2020~2022)

COVID-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미국 FRS(Federal Reserve System)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⁵ 이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체계적 우려가 확산되었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전통적인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 중심 자산 배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Digital Gold)'이라는 새로운 시장 인식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⁵ Ihrig, Jane, and Christopher J. Waller. The Federal Reserve's Responses to the Post-Covid Period of High Inflation,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b. 2024.

- **Strategy(Microstrategy) (2020):** 2억 5천만 달러로 시작하여 2022년 말까지 총 40억 달러를 투자. 현금성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 목적. 기업 자산 배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장기 보유 전략 확립.
- **MassMutual (2020):**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ALM)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헷지 및 포트폴리오 분산 목적. 보수적 운용기관의 비트코인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3세대: 경영 전략화 (2023~현재)

3세대는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동시에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통합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인플레이션 헷지에서 더 나아가 주식 및 채권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활용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장기 자본 증식 수단으로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선도 기업들은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규 수익원 창출의 전략적 매개체로 확장하여 활용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트코인이 우수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브랜드 가치, 기술 혁신 역량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까지 포괄적으로 기여하는 종합적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 **Block Inc.(2023):** 2020년부터 보유한 비트코인을 핵심 사업 전략에 통합. 비트코인 하드웨어, 채굴 시스템 및 Web3.0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 목적. 제품·기술·사업 전략 전반에 비트코인 활용을 통해 기업 정체성 재편.
- **Semler Scientific (2024):** 의료기기 업체 최초 비트코인 핵심 재무 전략 도입. 기업가치 재평가 및 현금성 자산 수익률 재고 목적. 이사회 승인과 정관 반영을 통한 제도화된 전략 자산 포지셔닝.
- **KULR Technology Group (2024):** 잉여 현금의 최대 90%를 비트코인 투자 진행. 비트코인 보유 및 관리를 핵심 KPI로 설정. 자산 운용과 경영 전략의 유기적 통합 프레임워크.

비트코인 편입 전략의 분류 체계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은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접근이 아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체계적 자산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업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를 넘어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편입의 스펙트럼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20개 기업을 분석하면 보유 전략에 따라 세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구조의 중심으로 삼아 대규모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와 비트코인을 연동시키는 유형, 직접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상받고 축적하여 사업 모델과 자산 보유를 일체화 하는 유형 및 기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편입하여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 Aggressive Holdings(이하 Aggressive):** 2025년 Strategy는 BTC 592,000개를 보유하며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시가총액(약 1,030.9억 달러) 대비 60.3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매입을 통해 구축한 비트코인 중심 자산 구조의 대표 사례입니다. Twenty One(XXI)의 경우, 더욱 극단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단기간에 BTC 37,230개의 비트코인 보유로 시가총액 대비 1,131%에 달하는 비중을 기록하며, 사실상 비트코인 보유 자체가 기업 존재 이유가 되는 Bitcoin-Native Enterprise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Mining Operation(이하 Mining):**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인 MARA Holdings는 BTC 49,54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여 시가총액 대비 102%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직접 채굴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점진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iot Platforms, Hut 8 및 CleanSpark 등 역시 유사한 채굴 기반 축적 전략을 채택하며, 채굴한 비트코인의 현금화보다 비트코인 자체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수익화보다는 장기적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사업 모델 내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Conservative Allocation(이하 Conservative):** Tesla, Coinbase 및 Block 등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제한적 구성 요소로 활용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 및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의 전략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igure 3 – BTC 보유량 기준 미국 상장사 유형

No	기업명	비트코인 보유량	기업 시가총액 (MM, \$)	비트코인 보유량 / 기업 시가 총액	유형	비고
1	Strategy	592,100	103,086	60.31%	Aggressive	2020년 8월부터 지속적 BTC 대량 매입, 자금 조달에 전환사채 활용
2	MARA Holdings	49,543	5,099	102.01%	Mining	2020년 1월부터 직접 채굴 및 보유
3	Twenty One(XXI)	37,230	346	1131.16%	Aggressive	2025년 6월, de-SPAC 진행 중
4	Riot Platforms	1.00	1.00	1.00	Mining	2020년 1월부터 직접 채굴 및 보유
5	CleanSpark	12,502	2,579	50.90%	Mining	2020년 5월, 채굴 인프라 확장 및 직접 보유
6	Tesla	11,509	1,037,310	0.12%	Conservative	2021년 2월, 15억 달러 BTC 매입, ESG 정책에 따라 일부 매각 후 보유량 유지
7	Hut 8 Corp.	10,273	1,775	60.77%	Mining	2017년 말부터 직접 채굴 및 보유
8	Coinbase Global	9,267	75,212	1.29%	Conservative	2012년 운영 유동성 목적 BTC 보유, 2024~2025년 기준 BTC 매입 확대
9	Block Inc.	8,584	38,802	2.32%	Conservative	2020년 10월부터 전략 자산화 및 사업 연계 목적 매입
10	Next Tech. Holding	5,833	580	105.55%	Aggressive	2023년 9월부터 주식 발행과 옵션 전략을 통한 BTC 매입
11	GameStop	4,710	10,486	4.72%	Conservative	2025년 5월, 약 5억 달러 상당의 첫 BTC 매입을 시작으로 자산화 시작
12	Semler Scientific	4,449	420	111.29%	Aggressive	2024년 5월 기존 의료기기 기업에서 BTC 중심 경영 기업 선언
13	Cango	3,610	461	82.21%	Mining	2024년 11월, 기존 자동차 사업 매각 후 전면 채굴 사업 전환 및 직접 보유
14	Riot Platforms	1.00	1.00	1.00	Mining	2020년 1월부터 직접 채굴 및 보유
15	Microcloud Hologram	2,353	23	1097.49%	Aggressive	2025년 3월부터 비트코인 구매, BTC 대량 매입으로 추가 급등
16	Exodus Movement	2,038	869	24.62%	Conservative	2023년부터 자사 현금으로 BTC 보유 시작, 매달 보유량 공시
17	BITFUFU	1,709	518	34.64%	Mining	2023년 이후 북미/카타르 중심 채굴장 확대, 2024년 말부터 BTC 보유 시작
18	Fold Holdings	1,488	213	73.28%	Aggressive	2025년 2월 SPAC 상장 완료
19	Canaan	1,466	288	53.37%	Mining	채굴 장비 제조사로 시작, 2023년부터 자체 채굴 시작
20	Bitdeer Tech. Group	1,409	2,321	6.37%	Mining	2023년 4월 SPAC 상장 완료 후 2025년부터 채굴 사업 시작하여 타 채굴사 대비 보유량이 낮음

Source: Bitcoin Treasuries, Wavebridge
 *국적 기준이 아닌, 미국 거래소 상장 기준

2025.06

2. 국내 도입 기회와 한계

규제, 늦었지만 희망적인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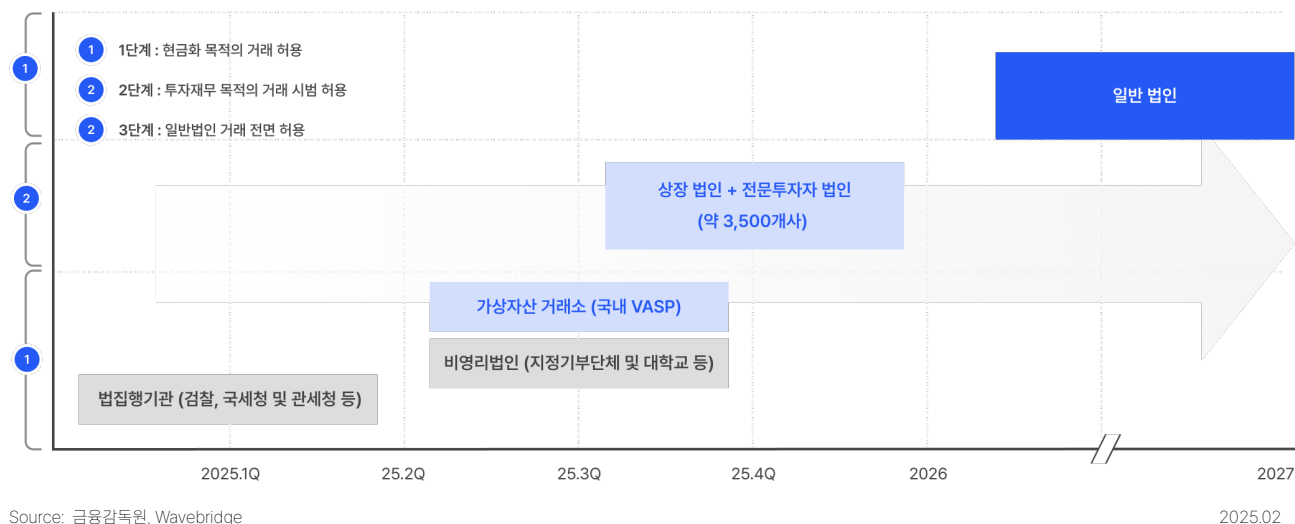
가상자산 규제는 그간 제한적 정책에서 점진적 허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우회하여 가상자산 투자 및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도 국내 법인으로 가상자산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회계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최근 단계별 육성 정책으로 선화하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 및 기관투자자 육성에 적극 나서는 동안, 한국은 보수적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도 제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2023년 12월, K-IFRS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과 2025년 2월, 금융위원회의 '단계적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들도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Figure 4 –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단계적 허용 가이드라인



회계 기준의 명확화 진행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9년 IFRS 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보유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단편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었으나,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2023년 12월에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법인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간주되어 무형자산으로 분류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해당 분류 방식은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하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무형자산 회계처리 방식으로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분을 수익으로 즉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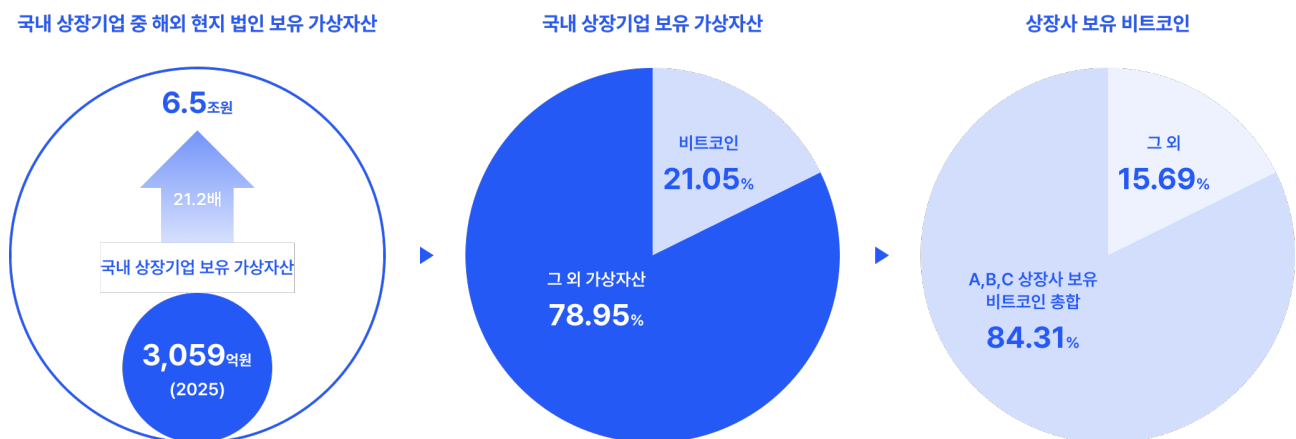
기업들의 새로운 움직임

과거 가상자산 회계 처리의 제약과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나 해외 지사 또는 법인을 통해 관련 사업을 영위해왔던 기업들이 국내 법인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본격 이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낮은 출발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선행 경험과 성숙해진 시장 환경 및 명확해진 국내 제도 기반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Figure 5 - 국내 상장사 가상자산 보유 현황



Source: 금융감독원, Wavebridge

2025.05

국내 기업의 딜레마

국민의 약 35%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투자 참여율을 보이지만,⁶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단순한 규제적 제약을 넘어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로 인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기업내 세대적 인식 격차 또는 선례 부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기업의 낮은 관심도가 그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배구조의 딜레마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주회사가 계열사들을 통합 관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주사의 전략적 결정만으로 비트코인 투자 같은 혁신적 자산 배분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투자가 지주사와 모든 계열사의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보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이나 "First-mover" 전략보다는 안정성이 검증된 "Fast-follower" 방식과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그룹 전체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망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인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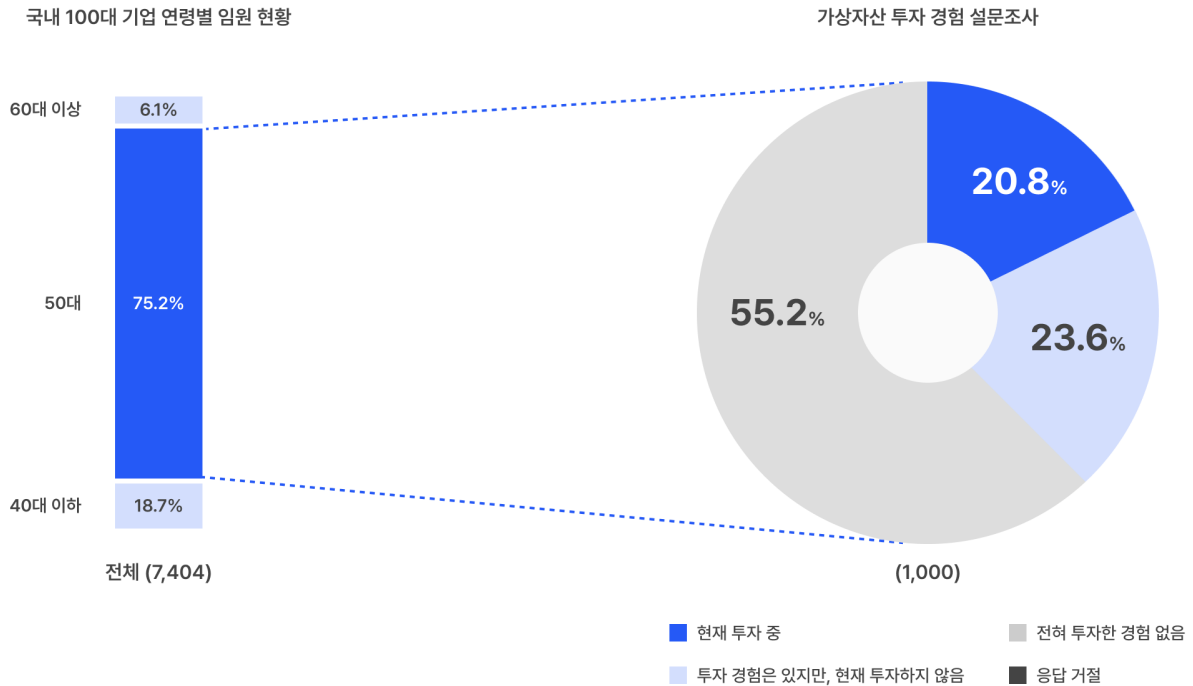
국내 기업 내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와 의사결정권 분포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추진의 근본적 조직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령별 가상자산 투자 경험 조사 결과, 30대의 56.4%가 투자 경험을 보유한 반면 50대는 39.2%에 그치는 등 명확한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경험을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친숙도와 수용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층의 구성입니다. 2024년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50대가 75.2%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앞의 데이터와 교차 분석하면 주요 기업 임원의 45.7%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는 비트코인 도입 시 상당한 조직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진이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적 도입을 건의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영진과의 관점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⁶ CoinGeek. Digital Asset Trading Boom Raises Alarm in South Korea. CoinGeek, Apr. 2025.

Figure 6 – 국내 연령별 임원 현황 및 가상자산 투자 경험



Source: 유니코서치, Embrain, Wavebridge

2024.11

이해관계자 설득의 벽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사 차원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벤치마킹 사례가 없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 A그룹 지주사 재무팀장 -

국내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검토할 때 담당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투자 자체의 재무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과 이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선례가 없어 적절한 투자 프레임워크나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우려는 주주총회에서의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투자 결정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받게 되어 경영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이 리스크 관리, 주주 가치 보호, 규제 준수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에 대한 통합된 합의를 도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주주들의 이질적 기대도 복잡한 변수입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치 투자자와 디지털 자산 확대를 지지하는 혁신 지향적 주주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신중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기업별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양극화

기업의 비트코인 도입 여부가 주목을 받던 단계를 지나, 현재는 도입 전략과 구조적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어떤 방식과 구조로 편입할 것인가?'이며, 이는 기업의 보유 목적과 경영 철학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됩니다.

비트코인 중심 경영(Bitcoin-Native Enterprise)을 위한 재무 전면 통합: 기업의 전체 자본 구조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집중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위한 보완적 자산 편입: 기존 자산(현금 또는 채권)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에 전환하는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리스크를 통제하며 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을 추구하며, 즉각적인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 경영을 위한 재무 전면 통합

기업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인식하며, 하나의 투자 수단이 아닌 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전반에 비트코인을 내재화하여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30% 이상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기업가치 증대와 자금 조달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보입니다.

해당 전략은 실행 방식에 따라 자체 채굴(Mining) 방식과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굴 방식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축적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채굴 기반 전략은 국내 기업에게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 채굴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전력 사용 규제, 산업단지 입지 제한, 환경 규제, 과세 및 회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제도권 내 사업화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중심 경영을 위해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사실상 외부 자금 조달이 대표적인 경로로 평가됩니다.

Figure 7 –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 방안

국가	부채성 금융수단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	신주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
개요	- 회사채, 전환사채, 기업어음 등 부채성 금융수단으로 자금 확보 - 잉여 현금 없이도 자산 확보 가능하나, 부채비율 증가 위험 존재	- 유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 확보 - 자기자본 기반 투자로 레버리지 리스크는 낮으나,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전략적 특징	- 현금 부족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익스포저 확보 가능 - 고정 이자율 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비용 예측 가능	- 타인자본 조달과 달리 레버리지 및 이자 부담 없이 자산 확보 가능 - 신주 발행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필요
주요 장점	- 기존 보유 자산 처분 없이 비트코인 확보 가능 - 금리 변동 리스크 통제 및 자금조달 비용 예측 가능	- 이자비용 없이 비트코인 확보 가능 - 자기자본 기반의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리스크 요인	- 레버리지 증가로 자금조달 비용이 수익률 상회 시 재무구조 악화 - 채무비율 증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 위험	- 기존 주주 지분 희석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 우려 - 제3자 배정 신주가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지배구조 이슈 및 거래 투명성 논란 가능성 존재
회계·공시 고려사항 K-IFRS 기준	- 조달 자금은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되지만,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상 자산구성 변화 발생 - 시세 상승분은 회계상 인식 불가하여 가격 상승분은 매도 전까지 회계상 미인식, 하락분만 손익 반영하는 비대칭 회계 구조	
	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 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유상증자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대한 명확한 IR 커뮤니케이션 필요
사례	엘살바도르 정부: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 및 국제 투자자들과의 신뢰 형성 측면에서 난항	MetaPlanet(일본): '25년 6월 "555 Million Plan" 발표, 555백만 신주 발행으로 '27년까지 21만 BTC 보유 목표

비트코인 중심 경영 기업의 순환형 재무 구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은 일부 상장사는 단순 보유를 넘어, 자산 가치·주가·자금 조달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재무 구조(Circular Treasury 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자본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수록 기업의 재무적 확장성이 커지는 자기강화형 구조(Self-Reinforcing Cycle)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즉시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합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의 총 자산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며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재무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은 추가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역시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 후속 유상증자 또는 전략적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지속적인 비트코인 투자 확대가 가능합니다.

해당 구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장기 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경영진의 철학과 시장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구현이 가능한 고위험·고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전사 차원의 재무 전략과 자산 운용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결과적으로 기존 산업군과 무관한 기업조차 비트코인 보유량이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중심 경영을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의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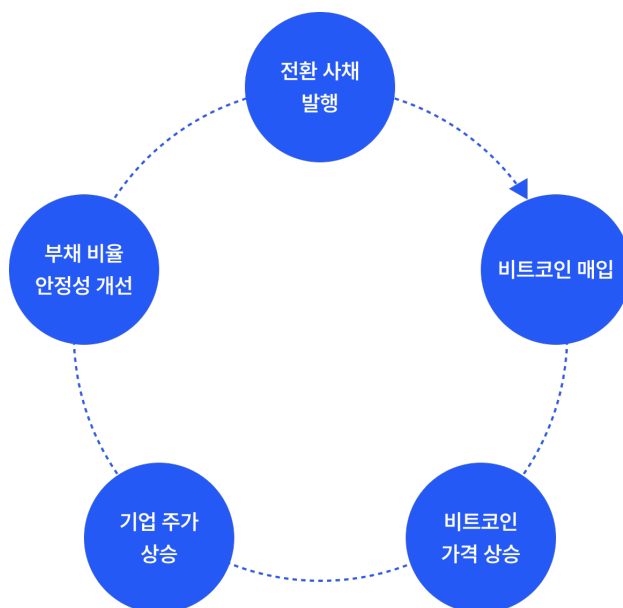
비트코인 중심 경영 전략은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과 재무 구조 전반을 오직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는 고위험 자본 재배치 방식입니다. 이는 단일 자산에 대한 극단적 투자로, 가격 상승 시 기업 가치 증대 효과가 있으나 주요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순환적 구조의 위험: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빠르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 시 주가 하락, 전환 유인 약화 및 자금 조달 비용 증가라는 역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 전체가 단기간 내에 붕괴될 수 있으며, 자금 조달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및 회계상 손실 등 여러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신용등급 리스크: 전환사채 및 회사채 반복 발행은 기업의 부채 비율과 이자지급 능력이 약화되어 신용평가 하향 조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변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이 기업 자산의 30% 이상일 경우, 자산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당 구조를 참고할 경우, 실행 방식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국내 자본시장과 회계 제도, 금융 규제, 투자자 성향 및 국내외 환경 전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충격에 대비한 리스크 완화 전략을 필수적으로 병행하여야 합니다.

Figure 8 -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보완적 자산 편입

비트코인을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방식이 반드시 극단적인 보유나 재무 구조 개편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 모델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은 기존 핵심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잉여 현금을 활용한 점진적 자산 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최적화된 접근법입니다. 비트코인의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Figure 2 참조)와 장기 성장 잠재력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분산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각 기업의 사업 특성, 재무 건전성 및 리스크 수용도에 따라 적정 편입 비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입니다. 실제 실행 방식은 매입 주기와 투입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접근법으로 구분됩니다.

Figure 9 – 기업의 잉여현금을 활용한 비트코인 매입 방안

카테고리	단발성 일괄 매입 (Lump-Sum Purchase)	주기적 분산 매입 (Dollar-Cost-Averaging)
개요	- 보유 잉여현금의 일정 비율을 일괄 투입하는 일회성 매입 - 이사회 승인, 재무위원회 심의, 커스터디 선정 등의 내부 절차 수반	- 월별·분기별 일정 금액의 잉여현금을 고정적으로 배분하여 정기적 매입 - 자동화 거래소 매수, OTC 정기 거래 계약 등으로 실행
전략적 특징	- 비트코인 장기 가치 상승 확신을 전제로 한 대규모 포지션 확보 - 수익률이 낮은 현금성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일괄 전환 가능	- 가격 변동 리스크 분산을 통한 평균 단가 안정화 - 재무 전략 및 현금흐름에 맞춘 예측 가능한 자산 편입 주기 확보
주요 장점	- 단일 거래로 실행·관리 절차 단순화 - 비트코인 저가 타이밍 적극 활용 시 초과수익 가능 - 잉여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잠재적 ROA·ROE 개선 (국내 미반영)	- 평균 매입단가의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자산 배분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재무 계획·현금흐름 관리 용이, 운영자금과 충돌 최소화 - 공격적 단기 베팅이 아닌 장기 투자 전략으로 대외 IR 가능
리스크 요인	- 매입 시점 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고점 매수 시 손실차손 부담 - 충분한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시, 단기 자금 경색 - 기존 사업 외 비트코인의 비중이 과도해질 경우, 경영 안정성 저해 우려	- 장기 실행을 위한 투자 정책 일관성 및 리밸런싱 규정 필요. - 반복 매입에 따른 운영 인력·시스템 비용 발생 - 기업가치에 대한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
회계·공시 고려사항 K-IFRS 기준	시세 상승분은 회계상 인식 불가하여 가격 상승분은 매도 전까지 회계상 미인식, 하락분만 손익 반영하는 비대칭 회계 구조	
	자산총액 변동 5% 이상 시 중요경영상황 공시 필요	반복 매입 시 보유 변동분을 반기·사업보고서에 주석 공시 필요
사례	Nexon (한국): 2021년 약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후 평가손실 공시, 시장 변동성 리스크 현실화	Block (미국): 초기 대규모 매입 이후, 매출의 10%를 정기적으로 비트코인 보유에 사용하는 매입 전략으로 전환

리스크 완화형 비트코인 도입 전략

포트폴리오 다각화 방식은 비트코인을 기존 재무 전략의 보완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점진적 통합 접근법입니다. 잉여현금 기반의 매입을 통해 기업 운영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재무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속도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자산군을 도입하는 실용적 경로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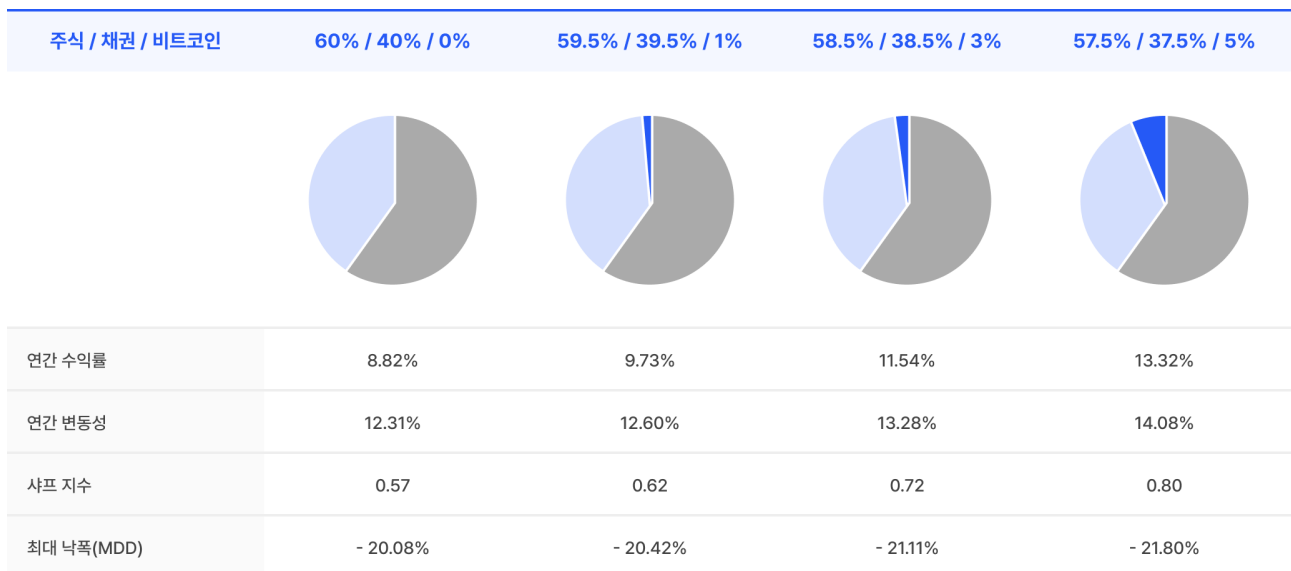
이 접근법은 전통적 자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가치를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일정 부분 통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 기업이 비트코인 도입 시 선택하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리스크 선호도에 따른 비트코인 적정 편입 비중

기업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할 때,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닌 최적의 편입 비중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전통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 시 기업의 자산 구조와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성공적인 전략 수립의 전제조건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수용 선호도에 따라 동일한 편입 비중이라도 요구되는 정당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위험 선호 모델(주식80% : 채권20%)의 경우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연 12.5% 이상일 때 3% 편입이 합리적인 반면, 저위험 선호 기업(주식40% : 채권60%)은 31.8%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전제되어야 같은 수준의 편입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추구하는 리스크 수준과 투자 전략에 따라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Figure 10 – 비트코인 편입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 변화



Source: Fidelity Digital Assets

2024

*샤프 지수: "(포트폴리오 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샤프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음

*본 차트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나 전략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음

기업별 자산 구조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만큼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표준 모델인 60:40 구조를 참조한 Fidelity Digital Assets의 연구에 따르면, 60:40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5% 소폭 편입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과 샤프 지수(위험 대비 수익률) 모두 일관되게 개선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독립적 가격 움직임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분산 효과를 높여 수익성 증대와 리스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3% 편입 시 연간 변동성은 13.28%, 최대 낙폭은 -21.11%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60:40 포트폴리오의 최대 낙폭인 -20.08% 대비 1%p 증가한 반면 수익률 개선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 리스크 증가 대비 높은 효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 자산입니다. 적정 편입 비중은 1~5% 범위에서 각 기업의 재무 여건과 리스크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USE CASE 1: NEXON

“창업주의 결단으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진행”

넥슨은 일본 지사를 통해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가 실행 가능한 재무 전략임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국내 사례입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개인의 취향이나 일시적 실험을 넘어 기업 차원의 지속 가능한 재무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검토 시 넥슨의 접근 방식과 결과는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1. 시장 기회 탐색 및 분석 (2016~2021)

넥슨의 비트코인 투자는 즉흥적 결정이 아닌 체계적인 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은 2016년 코빗(Korbit) 인수부터 2018년 비트스탬프(Bitstamp) 인수까지 3년간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깊은 시장 인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비트코인 투자 전략 수립 (2021)

넥슨은 명확한 투자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가설 하에 전체 현금 자산의 2% 미만으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접근법입니다.

3. 실행 (2021)

2021년 4월 넥슨은 수립된 전략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본 지사를 통해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8,226에 매수하며 총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입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넥슨은 투자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며 투기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자산 배분임을 강조했습니다.

4. 일관된 접근 (2021~현재)

투자 후 50%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넥슨은 패닉 셀링(Panic-selling) 대신 투자 논리를 재점검하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1,100억 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의 일부"로 정의하며 단기 수익실현을 하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바라보는 일관된 철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4. 재무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회계처리, 신용평가 및 성과측정에서 기존 재무관리 프레임워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매 분기 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반면, 국내는 무형자산 기준으로 비트코인 상승분이 기타포괄손익 처리되어 주요한 기업 평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전용 재무지표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점진적 다양한 측면에서 점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

비트코인의 회계처리는 공정가치 측정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선제적으로 전환을 완료한 반면, 국내는 여전히 무형자산으로만 처리 가능한 상황이므로 분기별 성과 반영에 제약이 있으나 안정적 기반에서 체계적인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미국 vs. 한국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

미국의 ASU 2023-08⁷ 시행으로 공정가치 모형을 이용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회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현행 무형자산 기준하에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ASU 2023-08은 범위 내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격 변동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⁸ 과거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가격 하락 시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가격 상승은 매각 시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비대칭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로 매입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5억 달러로 상승해도 회계상 여전히 1억 달러로 기록되지만, 8천만 달러로 하락하면 즉시 2천만 달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SU 2023-08이 시행되면서 비트코인 보유로 인한 가치 증감이 매 분기 손익계산서에 즉시 반영되어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 비트코인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2023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채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활성화된 시장이 있으므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인 EPS(주당순이익), ROE(자기자본이익률), ROA(총자산이익률)에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국내 기업 경영진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성공적이어도 재무적 성과를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워 이사회 설득에 한계가 있으며,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손상차손만 인식되어 경영진에게 부담이 됩니다.

⁷ ASU 2023-08: US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회계 기준 중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내용

⁸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ccounting Standards Update, Intangibles—Goodwill and Other—Crypto Assets. FASB, Aug. 2023.

Figure 11 – 국내외 비트코인 회계처리 비교

국가	미국	대한민국			
구분 (목적)	ASU2023-08	금융상품	통상적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목적	판매 목적 외	판매 목적 외
분류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상 금융자산으로 분리되지 않아 분류 불가	재고자산	무형자산 (비활성 시장)	무형자산 (활성 시장)
측정 방법	원가모형 재평가모형을 폐지 후 모두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	원가/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원가 - 손상차손	공정가치 측정
상승 시 반영	이익 반영	당기손익 반영	반영 안됨	반영 안됨	기타포괄손익 (자본)
하락 시 반영	손실 인식	손실 인식	손실 인식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 인식
EPS* (주당순이익)	○	○	△	△	△
ROE* (자기자본수익률)	○	○	△	△	○
ROA* (총자산수익률)	○	○	△	△	△

Source: 금융감독원, FASB

*EPS(Earning per Stock):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1주당 창출된 순이익

*ROE(Return on Equity):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자본 대비 이익률

*ROA(Return on Asset):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산(자본+부채) 대비 이익

Wavebridge Comments: 현행 회계기준의 제약을 감안할 때, 전면적 비트코인 전환보다는 잉여 현금의 일부를 활용한 점진적 도입이 국내 기업에게 최적화된 접근법입니다. 이는 회계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인한 분기별 변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신용평가의 관계

기존의 전통적 신용평가 체계로는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재무 구조 및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신용등급이 정크본드(Junk-Bond) 등급임에도 0%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지만, 선제적 소통을 통해 건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의 한계와 변화

가상자산의 부상으로 기존 글로벌 신용평가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수 및 현금흐름 등 검증된 재무제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 자산 대비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 했습니다. 특히, Strategy처럼 부채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은 기존 신용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재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평가 기준의 구체적 변화는 S&P(Standard & Poor's)의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시장 변동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낮은 이자 비용과 단기 부채 만기 부채로 향후 12개월간 자본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인식 변화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 규제 환경 개선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S&P는 Strategy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과 실제 조달비용의 괴리

Strategy의 사례에는 신용등급과 실제 조달 비용 간의 구조적 괴리가 존재합니다. Strategy의 신용등급은 CCC+에서 B-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정크본드 등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0% 금리로 30억달러의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채권의 전환가격은 \$672.40/주로, 직전 가중평균 주가인 \$433.8 대비 55%의 프리미엄이 있는 가격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ICE BofA Single-B US High Yield Index⁹ 수익률은 7.07%이었으며, 5년간 복리투자 시 기대 수익률은 40.71%이었습니다.¹⁰ 하지만 Strategy 투자자들은 이러한 확정 수익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조건부 수익을 추구하면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Wavebridge Comments: 현재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에 대한 명확한 신용평가 가이드라인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trategy의 특수한 비트코인 재무전략을 벤치마킹하기보다 신용평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건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은 신용평가기관과의 선제적 소통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평가 기준, 적정 보유한도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투명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변동성 대응 능력과 건전한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을 입증하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준수를 통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 차익 추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및 규제당국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⁹ ICE BofA Single-B US High Yield Index는 'B+', 'B', 'B-' 등급 전체를 합친 'Single-B' 등급 하이일드 회사채 수익률을 의미함

¹⁰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ICE BofA US High Yield Index Effective Yield. 2025.

재무 지표의 재정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ROE나 ROA와 같은 전통적인 재무 지표만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NAV 및 BTC Yield 등 비트코인 운용 성과에 초점을 맞춘 재무 지표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지표가 아직 생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재무 지표와 병행하여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시장의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전용 재무 지표의 등장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 재무지표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운용 실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 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NAV, BTC Yield 및 Days to Cover mNAV 등 비트코인의 가치를 반영한 지표들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재무 지표는 핵심 전략 지표와 운영 효율성 지표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표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및 운용이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Figure 12 –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기업의 핵심 재무 지표

지표	종류	정의	공식	설명
mNAV (Multiple of Net Asset Value)	재무 전략 지표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자산가치 비율	$\frac{\text{Market Cap}}{\text{Value of BTC Holdings}}$	- 투자자들이 순수 비트코인 보유가치 대비 지불하는 프리미엄 - 기업의 비트코인 운용능력에 대한 기대치 반영 - PBR의 비트코인 버전
BTC Yield	재무 전략 지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의 증가율	$\frac{\text{BTC per Share}_{\text{end}} - \text{BTC per Share}_{\text{start}}}{\text{BTC per Share}_{\text{start}}}$	- 주식 회식을 고려한 주당 비트코인 매입 시 기존 주주 이익 여부 - ROE의 비트코인 버전
Days to Cover mNAV	재무 전략 지표	프리미엄 해소 소요기간	$\frac{\ln(\text{mNAV})}{\ln(1 + \text{BTC Yield})}$	- BTC Yield를 통해 mNAV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기간 - 투자자 기대치 충족 예상 시점 - 비트코인 축적 효율성 지표
BTC Torque	운영 효율성 지표	자본 효율성 측정	$\frac{\text{Value of BTC Holdings}}{\text{Amount invested in BTC}}$	- 투입 자본 \$1 당 창출된 비트코인 가치 - 모든 자금조달(부채 포함)의 레버리지 효과 -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정도 평가

Source: Strategy, Wavebridge

Figure 13 – 비트코인 재무 지표를 활용한 기업별 현황 비교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 (BTC)	mNAV	BTC Yield (YTD)	Days to Cover mNAV (Days)	시가총액 (\$, 억)
Strategy (MSTR)	592,100	2.1x	13.7%	620+	1000+
MetaPlanet (3350)	11,111	5.08x	121.1%	366+	9+
Semler Scientific (SMLR)	4,449	0.82x	26.7%	N/A	4+
Block Inc. (XYZ)	8,584	1.2x	N/A	N/A*	400+
The Blockchain Group	847	9.4x	861%	152+	미공개

Source: Bitcoin Treasuries, Wavebridge

2025.06

*Block Inc.의 경우, 연초 비트코인 보유량 및 주식수가 불분명함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aPlanet은 빠른 비트코인 축적으로 높은 mNAV를 증명했고, Strategy는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Semler Scientific은 BTC NAV 이하에서 거래되며 시장 신뢰 확보¹¹⁾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BTC Yield가 mNAV의 파생된 개념이므로 지표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 독립적인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NYDIG(New York Digital Investment Group)의 연구책임자는 mNAV만으로는 기업 평가가 부족하며 현금, 기업가치, 부채 및 우선주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avebridge Comments: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재무 지표에 익숙하지 않아, 기업가치 평가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 재무지표와 신규 비트코인 지표를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평가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시작한 상장 기업의 경우 구체적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공시를 통해 비트코인 재무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정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 세션을 운영하며, 한국거래소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글로벌 기준과 일치하는 보조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무 관리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고려하는 기업은 회계, 신용관리, 성과평가 영역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준과 국내 규제 환경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¹¹ Bitcoin Treasuries, Block, MetaPlanet Holdings Overview. Bitcoin Treasuries, July 2025.

5. 체계적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

국내 기업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2020년 이후 검증된 성과와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일정 수준 완료됨에 따라, 후발 주자로서 글로벌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현금성 자산 규모, 리스크 수용도 및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통된 원칙은 소규모 도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후,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세대 간 인식 격차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한 기업 자산 가치 보존 효과를 확보합니다. 또한, 전통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활용한 자산 분산 효과로 재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 리브랜딩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향후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닌 자본시장에서의 긍정적 평가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검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성숙해지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업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실행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Contacts

Jay Lee | 이지훈

COO

E. jay.lee@wavebridge.com

Peter Chung | 정승환

Head of Business Department

E. peter.chung@wavebridge.com

Authors

Frederick Kim | 김덕영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E. frederick.kim@wavebridge.com

Lina Eom | 엄선영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E. lina.eom@wavebridge.com

법적 고지서

본 문서에 수록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사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수록된 내용에는 향후 전망, 재무 정보, 예상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외부 환경, 시장 여건, 규제 변화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수신자의 고유한 책임입니다.

본 문서는 공익적 정보 공유 및 산업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로,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자유로운 인용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단, 내용의 무단 변형, 왜곡 또는 상업적 판매·재배포는 금지되며, 해당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법률, 세무, 회계, 재무 또는 투자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련 판단은 수신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구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신자는 반드시 독립적인 판단과 검토를 거쳐 본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본 문서를 수령하고 보관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문서 및 그 사본 일체를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